

■ 지평 소식 ■

유정훈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미얀마 현지법인 복귀



(법무법인 지평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유정훈 변호사가 지난 10월 일본의 10대 로펌 중에 하나인 키타하마 로펌에서 연수를 마치고 미얀마 현지법인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국내 유력 로펌에 근무하면서 송무 및 기업자문에 대한 경험을 쌓았으며, 2009년도 법무법인 지평 라오스 지사장, 캄보디아 지사장으로 해외파견근무를 시작한 이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법률, 관행 및 법률업무에 대한 경험을 현지에서 쌓은 거의 유일한 한국변호사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5년여간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건설분야 및 금융분야의 대기업 등을 자문하고,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정부가 제정한 부동산규제법안의 폐지 및 제정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초 최초의 캄보디아 기업 상장업무인 캄보디아 국영기업인 프놈펜수도청(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의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상장업무를 현지 주 담당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등 독보적인 해외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활동 영역과 역량을 넓혀 법무법인 지평의 미얀마 현지법인의 법인장을 겸임하며 시장개방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서 고객들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일본의 키타하마(Kitahama Partners)에서 연수를 하며 일본 변호사들과 캄보디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의 기업고객뿐 아니라 일본의 기업고객에 까지도 그 업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